



장애인 평생학습에 대한 장애인, 가족, 평생학습기관 실무자의 인식 및 요구: A시를 중심으로*

이 지 선** · 김 유 리*** · 백 예 은**** · 최 아 름***** · 이 종 민***** · 임 보 령*****

Perceptions and Need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Their Families, and Workers in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s about Lifelong Learning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

Lee, Jisun** · Kim, YuRi*** · Baek, Yae Eun**** · Choi, Areum***** ·
Lee, Chongmin***** · Im, Boryung*****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overall experiences and support demands related to lifelong learning of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their families and workers in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s in order to enhance the opportunities for lifelong learning participation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Method]** To address the purpose, in-depth individual interviews and focus group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a total of 16 participants, including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and their families who have experience with lifelong learning programs, as well as workers in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s. **[Results]** The analysis resulted in four main themes and 17 sub-themes related to perceptions and support demands for lifelong learning among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The four main themes included the positive impact of lifelong learning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barriers to participation in lifelong learning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strengthening lifelong learning program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building an infrastructure for lifelong learning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Conclusion]** Considering the positive impact and necessity of the participation of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in lifelong learning, multidimensional efforts are needed to expand their involvement. It is crucial to improve physical accessibility to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s and enhance informational accessibility to lifelong learning programs. There is also a necessity to develop high-quality programs and enhance the expertise of personnel. Furthermore,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 network system among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s in the local community and build infrastructure. Above all, comprehensive efforts are required to raise awareness about lifelong learning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within the local community and foster an inclusive culture.

Key Words : Lifelong learning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Lifelong education,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

- * 이 논문은 서대문구 교육지원과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제 1저자,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Ewha Womans University
*** 교신저자,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학과 교수
Professor, Dept. of Special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 공동저자,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학과 강사
Dept. of Special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 공동저자,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학과 학생, 대학원생
Dept. of Special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I. 서론

2016년 5월 「평생교육법」에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조항이 포함되면서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이 강화되었다. 이에 2018년 5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의무를 준수하고자 국립특수교육원 산하에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센터가 설립되고, 해당 센터가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 조사, 장애 유형별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 간 연계 체제 구축 등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장애인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평생학습 참여 기회는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이다.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평생학습 참여 경험이 전혀 없는 장애인의 비율은 99.1%(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로 평생학습에 참여한 비율이 전체 장애인 중 1%도 되지 않는 것에 반해, 비장애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28.5%(한국교육개발원, 2022)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평생학습 참여율의 격차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장애인 실태조사’의 조사 문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1주일 동안 주로 시간을 보내는 활동을 묻는 문항에 대다수의 장애인(89.4%)이 ‘TV 시청’으로 응답하였고, ‘문화 예술 참여’로 응답한 장애인은 3.0%, ‘취미 및 자기 계발 활동’으로 응답한 장애인은 3.8%에 그쳐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의 수가 매우 제한적임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장애학생 졸업 후 생활상태 조사(국립특수교육원, 2021)에서도 유사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졸업 후 ‘직업훈련’에 참여한 장애학생은 14.6%에 불과하였으며,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한 장애학생도 6.7%밖에 되지 않았다. 이는 장애인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 방안이 적극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지원 체계 수립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최근 들어 법적·정책적 지원 마련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일례로,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023~2027)’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인프라를 제공하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장애 유형 및 정도별,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 및 확대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제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2023~2027)’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평생교육 격차 완화라는 목표 아래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확대를 통한 지역단위 장애인 평생학습 활성화 기반 조성, 평생교육 이용권을 통한 학습 자율성 및 선택권 강화, 다양한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모델 개발 및 확산 등을 주요 과제로 채택하고 있다.

장애인 평생학습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정책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연구 또한 다수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실행된 연구를 살펴보면, 장애인 평

생학습 관계자(예: 특수교사, 프로그램 운영자 등)를 대상으로 평생학습에 대한 인식 및 요구를 살펴보기(강주희, 정연수, 2023; 권미영, 2022; 김두영, 이경준, 2018; 김두영 외, 2019; 서유경, 박재국, 2022; 양인숙 외, 2020; 이신영, 서석진, 2022; 차재경, 박영근, 2021; 최운영, 이세희, 2020) 장애인 평생학습 교육과정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김기룡, 나경은, 2015; 홍성두, 조은혜, 2018)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평생학습에 중점을 두고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기도 하였다(김경열, 2017; 김기룡, 2020; 이현주, 정평강, 2021; 정평강 외, 2019; 홍성두, 조은혜, 2018). 하지만 이들 연구 중 대다수는 평생학습 관련 종사자 및 사업 담당자를 중심으로 한 양적 조사로 이루어졌으며, 그마저도 장애인 당사자의 평생학습 참여 경험과 요구를 알아본 연구(김현숙, 양희택, 2019; 정평강 외, 2019)와 장애인 가족의 목소리에 직접적으로 귀를 기울인 연구(명소연, 김두영, 2017; 이재호 외, 2020; 정평강 외, 2019)는 매우 제한적이다.

2021년에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장애인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조항이 신설되고 2023년에는 총 63개 도시가 지정되었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도시에서는 '장애인 평생학습에 대한 접근성 확대와 장애인 학습자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평생학습을 제공'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평생학습 관련 종사자 뿐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필수적이다. 아울러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과 제도가 더 효율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장애인 당사자의 인식 및 요구를 다각도에서 깊이 있게 탐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까지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에서 장애인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신윤희와 박경옥(2021)의 연구가 유일하며, 이 연구도 설문조사를 통한 양적 연구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에서 평생학습에 참여한 적이 있는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과 가족, 평생교육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평생학습 경험을 개별 또는 집단 면담을 통해 다각도로 면밀하게 탐색하고, 이들의 지원 요구를 심층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 평생학습의 물리적 접근성의 확대뿐 아니라 내용적 접근성의 향상을 돕고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에서 제공되는 평생학습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및 가족, 평생교육기관 실무자의 평생학습에 대한 경험 및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장애인 및 가족, 평생교육기관 실무자의 평생학습에 대한 지원요구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의도적 표집방법(purposive sampling)과 눈덩이 표집방법을 통해 모집하였으며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A시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이용경험이 있는 장애인과 가족, 평생교육기관 실무자(3년 이상의 근무 경력 보유)가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장애인 및 가족(어머니)은 11명, 평생학습 관련 실무자는 5명으로 총 16명이 선정되었다. 연구 참여자 배경정보는 <Table 1>, <Table 2>, <Table 3>과 같다.

<Table 1> Background informa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No.	Types of disability	Gender	Age	Severity of disability	Lifelong learning program (Duration of participation)
P	Physical disability	Male	60s	Severe	• Wheelchair meetings (10 times a year)
	Physical disability	Female	40s	Severe	• Sewing (3 years), Resin art (2 years), Ribbon art (2 years), Chocolate making (3 years), Knitting (3 years)
	Physical disability	Female	50s	Mild	• Calligraphy (2 years), Colored pencil drawing (3 years), Sewing (3 years), Dry flowers (2 years), Ceramics (2 years)
	Physical disability	Female	50s	Severe	• Basic computer education (6 months), Dry flower (3 years), Ceramics (3 years), Sewing (3 years), Writing (1 year)
	Physical disability	Female	60s	Severe	• Darts (2 years), Laughter therapy, Boccia
H	Hearing impairment	Female	50s	Severe	• Drone (2 years), Museum experience (5 years), International sign language (2 years), Scholastic (2 years), Grammar comprehension (2 years)
	Hearing impairment	Female	60s	Severe	• Art tours, Sign language meetings, Hobby shops, Exhibitions (once a month), Basic computer education (9 months)
V	Visual impairment	Female	50s	Severe	• 3D Printing
D	Intellectual disability	Male	30s	Severe	• Baking, Dance, Gardening (3 years and 3 months), Reading program (2 years)

〈Table 2〉 Background information of mothers who have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No.	Family	Age	Child		Child's lifelong learning program (Duration of participation)
			Severity of disability	Age	
F	Mother	30s	Severe	30s	<ul style="list-style-type: none"> Physical education (3 months), Day care (5 years), General education (1 year and 4 months)
	Mother	20s	Severe	20s	<ul style="list-style-type: none"> Dance, Communication, Daily living, Physical education, Music, Art, Gardening, Socialization programs, Baking, Healthcare (4 years)

〈Table 3〉 Background information of lifelong learning workers

No.	Gender	Age	Job title	Tasks of lifelong learning (Duration)
E1	Female	50s	Manag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Worked for 10 years at a lifelong education center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raining, Management, Planning
	Female	30s	Social work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Worked for 2 years and 2 months at a center for independent living of people with disabilities Sewing machine training practicum (Props production, Garment remodeling, Exhibition fashion show)
	Male	30s	Social work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Worked for 8 years and 1 month at a community rehabilitation center Clubs (Gateball, Boccia, Coloring books, Outings), Physical education classes (Darts, Curling, Sports stacking), Laughter therapy, Health gymnastics, Smartphone education, Traditional games, Health lectures, Hanji, Pottery, Balloon art, Harmonica
	Male	30s	Social work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Worked for 7 years and 3 months at a social welfare center Continuing education projects for children and youth, Education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their 20-30s (Independence support, Cultural and artistic education, Vocational support, Physical education, Music, etc.)
E2	Male	20s	Social work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Worked for 3 years and 8 months at a social welfare center for the deaf 3D printer national qualification preparation class, Basic coding utilization education, Basic drone utilization education, Drone soccer team education, Coding drone education, VR, AR education, 3D pen utilization education, Sports support, Information education, Reading culture support continuing education (3 years and 8 months)

2. 자료수집 절차

1) 면담질문지 개발

심층 개별면담 및 초점집단면담(FGI)을 위한 주요 질문은 평생학습 참여 경험, 평생 학습기관 내 프로그램 대한 인식, 평생학습 관련 지원 요구를 중심으로 총 3개의 영역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연구 참여자에 따른 면담의 주요 질문 내용은 <Table 4>와 같다.

<Table 4> Interview guide

Research participants	Interview questions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their famil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hy do you participate in lifelong learning programs? • What do you like (or find helpful) about the lifelong learning programs, and what do you find challenging (or frustrating)? • What would you have liked to learn more about in a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 or what would you like to add? • What support is necessary to learn better at a lifelong learning institution?
Lifelong learning work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hat types of lifelong learning programs have you operated (including contents and cooperated institution of lifelong learning programs)? • What have been the satisfactions and challenges of operating a lifelong learning institution/program? • What support is necessary to better teach people with disabilities in your lifelong learning program? • What support is necessary to better operate your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 • What could be improved to make continuing education more disability-friendly?

2) 조사 절차

지체장애인 5명, 청각장애인 2명, 발달장애인의 가족 2명은 각 집단별로 초점집단면담을 진행하였고, 시각장애인, 발달장애인은 각 1명으로 개별면담으로 진행하였다. 특히 청각장애인의 경우 면담 시 수어 통역사가 동석하여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발달장애인의 경우 면담 문항에 대한 부가적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평이한 단어를 사용하여 자세히 그 내용을 설명하였다. 평생학습기관 실무자 4명을 대상으로는 초점집단면담으로 진행하였으며 실무자 1명은 개별면담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 과정에서 연구목적에 적합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가지고 진행하였으며 질문지는 면담 1주일 전에 제공하여 질문에 대해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면담 시작 전에 면담 목적과 절차 및 참여자들에 관한 연구 윤리적 고려, 녹취 등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진행하였다. 각 면담은 60분~9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전사된 파일은 면담별로 10~22페이지의 분량으로 총 215페이지 분량에 달하였다(글자크기 10, 줄간격 160 기준).

3. 자료 분석

모든 면담자료는 녹음 후 전사본으로 작성되었으며, 연구진 5인은 전사된 면담자료를 반복해서 읽으면서 내용을 요약하고, 반복해서 나타나는 주요 개념 및 주요 키워드를 찾아 의미를 부여한 뒤, 가능한 연구 참여자들의 언어를 항목별로 통합하는 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 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 단계로 두 연구자(제1저자, 교신저자)가 2개의 전사본을 독립적으로 읽고 코딩한 후, 코드명을 논의하고 각 코드의 의미를 기록하여 1차 코드북을 개발하였다. 두 번째 단계부터는 연구자들을 4개조(각 조마다 2인으로 구성)로 나누어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고, 나머지 5개의 전사본을 각 팀에 고르게 배정한 뒤 코드북 개정을 시작하였다. 코드북 개정은 첫 번째 조에서 1차 코드북을 바탕으로 새로운 전사본을 코딩하여 개발한 2차 코드북을 두 번째 조에게 전해주면, 그 조에서 새로운 전사본을 코딩하여 3차 코드북을 만드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코드북 개정에 따라 유사한 개념은 통합되고 공통적으로 발견된 주제는 전체 주제의 흐름과 의미에 맞게 재구성되어 5차 코드북이 개발되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제1저자가 코드나 주제들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6차 코드북을 정리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1저자와 교신저자가 6차 코드북을 다시 한 번 종합하여 최종 코드북인 7차 코드북을 완성하였다. 모든 코드북은 연구자 간의 지속적인 비교 분석을 통한 합의로 개정, 완성되었다.

전사된 내용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연구진은 녹음내용을 반복하여 들으면서 녹음내용과 전사본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였다. 연구 참여자가 자신의 인식과 경험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면담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면담을 진행하였다. 분석의 신뢰성(trustworthiness) 확보를 위해 자료 준비 단계부터 자료 수집, 자료의 조직 및 분석과 결과 보고 단계까지 모든 연구자가 공동(researcher triangulation)으로 수행하였으며, 면담 대상자를 장애인 당사자, 가족, 실무자로 구성하였고, 면담 형식을 개별면담과 초점집단면담을 모두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자료원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도출 후에 연구 참여자 일부를 대상으로 결과보고회를 가짐으로써 참여자 검증절차를 거쳐 적합성과 신뢰성을 확인하였다.

III. 연구결과

면담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 평생학습에 관한 인식과 관련하여 장애인 평생학습의 긍정적 영향, 장애인 평생학습 참여의 어려움,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강화, 장애인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이라는 4가지 대주제와 17가지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 주제 간의 관계는 <Table 5>와 같이 도식화될 수 있다.

<Table 5> Themes of the Interview

Theme	Subtheme
1. The positive impact of lifelong learning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1) Process of learning something new
	2) Development of social competence
	3) Emotional health
	4) Leisure time
	5) Alignment with employment
2. Barriers to participation in lifelong learning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1) Difficulties of participating in program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2) Barriers to participation in programs for people without disabilities
	3) Difficulties in accessing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
3. Strengthening lifelong learning program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1) Development of a variety of program content
	2) Development of program that reflects the nature of the disability
	3) Operation of integration(inclusive) program
	4) Achieving program stability
4. Building an infrastructure for lifelong learning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1) Ensuring accessibility
	2) Securing finances
	3) Empowering instructors
	4) Building an inter-agency network
	5) Improving perceptions of disability

1. 장애인 평생학습의 긍정적 영향

장애인 평생학습의 방향과 그 내용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에 앞서 연구 참여자들은 평생학습이 장애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강조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평생학습의 긍정적 측면은 (1) 새로운 배움, (2) 사회성 발달, (3) 정서적 건강, (4) 여가생활, (5) 취업과의 연계로 범주화되었다.

1) 새로운 배움

장애인 및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시작하면서 연구진은 연구 참여자들이 평소에 장애인 평생학습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는데, 참여자들은 평생학습의 의미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별반 다르지 않음을 강조하였다.

물론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지식이나 정보의 분야와 수준이 장애 유형이나 요구에 따라 개발되기에 비장애인의 평생학습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평생학습을 통해 장애인도 평소에 관심 있고 필요로 하는 내용을 익힐 수 있다는 점에서 배움과 성장에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는 점을 피력하였다. 더욱이 평생학습은 빠르게 변화되는 사회에서 장애인이 적응하며 살아가는데 필요한 내용들을 새롭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평생학습은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다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평생학습을 하게 된다는 것은 이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장애인들 역시 이제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자기개발을 통해서 이를 수 있는 기회라고 이제 평생학습이 그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E2:24-27)

2) 사회성 발달

연구 참여자들은 평생학습이 장애인의 삶에 갖는 의미를 관계 측면에서 언급하며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친구를 사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친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성이 향상된다고 이야기하였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이 가정에서 혼자 지낼 때는 자기중심적 행동을 주로 했다면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하면서 사회생활에 필요한 규칙과 예절을 익히고 사회에 어울리며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저는 평생교육센터에서 공부했던 게 재밌어요. (중략) 이제 (센터에서는) 친구들이랑 어울리는데 000(직장) 가면은 하루종일 서 있어야 되고 하니까. (D:193-196)

평생학습 기회는 장애인이 사회성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측면뿐 아니라 지역사회 참여의 촉진제가 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언급되었다. 일부 연구 참여자들은 평생학습 프로그램에서 만든 작품을 지역사회 내 공공기관에 전시하고 평생학습에서 배운 음악연주를 지역주민 앞에서 공연했던 경험을 들려주며 이러한 기회들이 지역주민과 연계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통합의 장을 마련해주었다고 응답하였다.

3) 정서적 건강

장애인 평생학습은 장애인의 심리적 안정과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담에 참여한 장애인들에게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좋았던 점을 물었을 때, 대부분 즐거움, 기쁨, 밝아짐, 행복과 같은 단어를 들려주었으며 연구 참여자들은 프로그램이 재미있어 우울한 감정이나 부정적 생각이 사라지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변화되었다고 전하였다. 또한 장애인은 장애로 인해 사회적으로 위축되는 경험을 많이 하는데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에서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 자연스럽게 공감대가 형성되고 정서적으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정서적 건강을 함양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장애인의 정서적 변화는 기쁨이나 행복감 같은 감정 변화뿐 아니라 그들의 자존감이 향상되는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하였다. 장애인들은 평생학습 프로그램에서 새로운 지식을 배우면서 성취감과 도전 의식을 느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나면서 자신감도 갖게 되었다고 회상하였다.

저희들이 조금 마음적으로 불편하니까 위축이 되죠. 그러면은 결혼하고 이렇게 몰랐던 것을 이제 여기 복지관을 통해서 같이 와서 하다 보니까 공감 가시는 분들이잖아요. (중략) 같은 아픔을 가진 분들하고 공감을 하니까 행복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못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데 마음적으로 위축이 됐잖아요. 그게 이렇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만들어져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P:59-66)

4) 여가생활

장애인 평생학습은 장애인이 사회성을 자연스럽게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정서적 건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여가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는 것으로 거론되었다. 특히 면담에 참여한 일부 장애인들은 여가시간 동안 취미생활이나 운동을 목적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등록하였다고 이야기하며 취미생활을 하고 싶어도 장애로 인해 지역 내 기관이나 센터에 접근하기 어려운 데, 장애인 평생학습으로 그러한 욕구가 해소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자녀가 학교를 졸업한 이후 낮 시간동안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한되어 있어 무료한 일상을 보냈는데, 평생학습기관에 등록하여 다양한 활동으로 하루를 채울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평생학습의 의미를 여가활동과 연계하여 강조하였다.

운동이나 이렇게 체력적인 부분도 많이 단련을 하다 보니까 오게 됐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취미 활동을 위해 참여하고 있습니다. (H:16-18)

5) 취업과의 연계

장애인 취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계속되고 있지만 실제 취업률은 그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장애인 평생학습이 취업의 기회를 마련한다는 점이 평생학습의 긍정적 측면으로 강조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이 들려준 평생학습이 일자리로 이어진 경험은 세 가지로 요약되었는데, 프로그램에서 제작한 제품의 판로가 생겨 수익이 창출된 사례, 프로그램에서 습득한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직종으로 취업이 된 사례, 프로그램에서 배운 기술을 토대로 전문 선수로 활동하는 사례로 도출되었다.

뜨개질하고 레진아트 같은 거 하고 그런 게 이제 판매로까지 연결이 돼가지고 배우면서 판매까지 하는 그게 같이 호환이 되더라고요. 저희가 배우면서 그걸 할 수 있는 그게 실력이 조금씩 더 향상되니까 판매까지 넘어가는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중략) 판매금으로 하면 되게 큰 수익이라고 생각을. 그걸로 하면서 여행도 가고 같이 은반지도 맞추고. (P:198-215)

한편, 연구 참여자 중 일부는 평생학습이 경제적 활동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보편적이지는 않다는 점에 안타까움을 표출하며 이러한 시도들이 확대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출하기도 하였다.

2. 장애인 평생학습 참여의 어려움

연구 참여자들은 장애인에게 평생학습 참여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였다. 연구를 통해 드러난 장애인 평생학습 참여의 어려움은 (1) 장애인 프로그램 참여의 어려움, (2) 비장애인 프로그램 참여의 어려움, (3) 평생학습기관 접근의 어려움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 장애인 프로그램 참여의 어려움

장애인을 대상으로 개설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려운 요인으로 가장 많이 거론된 것은 프로그램 이용 가능 인원 제한과 프로그램 참여 기간의 제한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은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거나 지원받을 수 있는 시간대에 개설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 프로그램 선택권에 제한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토로하였다. 특히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경우 프로그램 이용 기간이 정해져 있어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이용을 할 수 없는 제약이 있음에도 이를 대체하거나 해결할 현실적 대안이 없음이 지적되었다.

이용자분들이 사용을 언제 중단해야 될지 모른다는 이런 위협감도 있고. (중략) 만 39세까지 이용이 가능하신데 추가로 더 계속 이용하고 싶은 분들은 계속 계신데 이제 저기서 종결을 하지 않으면 티오가 나질 않아서 새로 입소자가 들어오지 못한 환경도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E1:196-207)

또한 장애인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프로그램 개설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한 연구 참여자는 평생학습기관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자신이 참여하던 프로그램이 갑자기 사라져 속상했던 경험을 들려주었다.

배우는 프로그램을 세웠는데 참여율이 낮아가지고 폐지되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소련도 그 동네고 또 손맨 놀이라고 있어요. 노래 배우는 거예요. 손으로 수화로 노래하는데 그것도 참여율이 저조해서 다 폐지됐어요. 나는 그것도 계속해서 배우고 싶은데요. (H1:183-185)

2) 비장애인 프로그램 참여의 어려움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장애인이 등록하는 것 자체의 제약이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비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장애인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은 크게 3가지로 수렴되었는데, 먼저 프로그램 내용 측면에서 장애인, 특히 발달장애인이 참여하기는 어렵다는 점이였다. 두 번째 장벽으로는 장애인의 특성에 적절한 지원의 부족이 언급되었다. 이는 장애인 중에는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기도 하나 비장애인 평생학습에서는 이러한 지원을 기대할 수 없어 프로그램 내용과 무관하게 참여할 수 없다는 점을 의미하였다.

꽃꽂이를 하고 싶어 이제 (비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신청을 했던 말이죠. (중략) 우리가 (장애인 평생학습) 센터에서 했을 때는 선생님들이 다 해가 지고 이 책상 앞에다가 우리가 할 걸 다 나눠줘요. 이렇게 그러면 앉아서 했어요. (중략) 다 꽃이고 막 이게 나무고 이걸 저희가 운반하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중략) 제가 딱 1회 참석하고 재료비 다 내고 그냥 스톱하고 왔어요. (P:746-754)

마지막으로는 비장애인의 인식을 꼽았는데,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비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장애인이 참여하면 비장애인이 불편해할 수 있다는 염려로 주저하게 된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3) 평생학습기관 접근의 어려움

평생학습자 입장에서 평생학습기관이 대중교통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있으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연구 참여자들은 평생학습기관이 오르막길 위에 위치하거나, 교통편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용하기 어려움을 지적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이동지원 차량을 이용하고자 하지만 이동지원버스에서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이 여의치 않거나, 기관과 다소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에서 하차를 해야 하는 경우들이 많아 불편함을 토로하였다. 특히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장애인의 경우 평생학습기관 중에는 물리적 접근에 제약이 있는 건물에 위치하는 경우가 있어 더 큰 불편함을 겪는다고 언급하였다.

☆☆프로그램이 나왔거든요.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갈 때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기에 누군가가 가야 되고 접근성도 사실은 저쪽에서 멀리 잡고 누군가가 차 태워서 가야 되고. (V:181-183)

3.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강화

연구 참여자들은 장애인의 평생학습에의 참여를 확대하고, 만족도 높은 평생학습을 제공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자체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이 보고한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강화를 위한 지원요구는 (1) 다양한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 (2) 장애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마련, (3) 통합 프로그램 마련, (4) 프로그램 운영의 안정성 확보로 범주화되었다.

1) 다양한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

연구 참여자들은 장애인 평생학습기관의 제한적인 프로그램 제공은 참여자들의 선호도를 반영하고 참여를 이끄는데 한계가 있음을 언급하며, 다양한 프로그램 콘텐츠가 개발되어 참여자들이 본인의 학습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기존의 프로그램 외에 추가되기를 희망하는 프로그램 유형으로는 직업교육 프로그램, 문화 및 여가 프로그램, 건강 및 체력강화 프로그램,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 인문교육(예: 스피치 강의, 심리상담 등) 프로그램, 장애인 부모 대상 프로그램 등이 언급되었다.

근데 지금 (평생학습도시)선정이 돼서 이렇게 시작을 하면 조금 다양한 프로그램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그래서 골라서 조금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F:614-615)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신규 수강생과 기존 수강생을 모두 모아 한 반을 구성하여 수업하는 점도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한계점이라고 보고하며, 이러한 수업체제로 인하여 기존 수강생들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동일한 교육내용을 반복적으로 교육받을 뿐, 단계적인 발전은 경험하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수준별 학습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참여자들이 자신의 능력 및 선호도에 맞게 프로그램을 선택하게 해야 함을 언급하였다.

새로운 분은 한두 분 생기면 저희가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중략) 또다시 기초수업부터 또다시 1년 하고. 또 내년에 가면 또 기초부터 다시 또 1년 하고 하니 계속 저희는 기초만 배우는...발전이 없어요. (P:710-712)

2) 장애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마련

연구 참여자들은 현재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장애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하며, 이를 반영한 장애 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장애 유형에 따른 지원 요구는 조금 상이하였는데, 청각장애인은 언어적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구성(예: 농인 반과 구화인 반 구성), 시각장애인은 직접 만져볼 수 있도록 실물을 통한 학습, 지체장애인은 수업 내 원활한 이동이 가능한 수업환경의 구성, 사고로 중도에 장애인이 된 사람들은 이들을 위해 병원으로 직접 찾아와서 평생교육을 제공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프로그램이 나눠져서 그렇게 신청을 받고 교육을 진행하면 좋겠다. 어떠한 프로그램을 하나 다 만들어 놓고 이거 그냥 누구나 어떤 장애든지 신청해 이게 아니고 장애 유형별로 프로그램이 달랐으면 좋겠어요. (V:244-246)

이와 함께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의 필요성도 강조하였다. 청년기에는 직무와 연결할 수 있는 내용, 노년기에는 체험활동을 위주로 하는 내용 등으로 구성하며, 또한 중간에 직장을 잃은 중장년층의 고립을 막기 위해 이들이 평생학습 현장에서 다시 교육받고 연계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3) 통합 프로그램 마련

연구 참여자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통합 프로그램의 운영이 확대되기를 바라지만 현실적으로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도 하고, 장애인을 위한 편의 제공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며, 예산의 제한으로 통합 프로그램이 어려울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현실을 보면 통합은 조금 교과서적인 얘기예요. (중략) 개인이 운영을 하거나 사실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기관에다가 이거를 강요하기에는 예산 부담이 너무 큰 거죠. (중략) 점차적으로 지향하는 건 통합이다라고 하되 저희들이 해야되는 것들을 또 장애인들 시설, 비장애인 일반 시설도 같이 좀 이렇게 협력하고 그러한 (평생학습)도시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E1:411-428)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 프로그램의 개발을 지향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며 실무자들이 제안한 한 가지 방법은 기초반을 통합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이었다.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학습의 속도가 느리고 반복학습이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기초반에서는 함께 수업을 듣고 그 후에는 각자의 요구에 맞추어 수업을 듣는다면 통합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같은 수업을 하되 하나의 수업을 3년을 할 수 있고, 5년을 같은 내용을 반복을 해도 그만큼의 성장 속도를 비장애인과 같이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그 차이를 인정하는 사회가 되면은 통합 학습이 가능하겠지만. (중략) 비장애인 학습은 따로 세분화하고 기초반을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E1:457-467)

4) 프로그램 운영의 안정성 확보

연구 참여자들은 평생학습 프로그램 이용자들의 선호나 수요가 많은 프로그램은 수강생 인원수에 제한이 있음을 언급하며 인기 있는 수업에 참여 인원수를 확대 운영하거나 참여 인원이 적더라도 꼭 필요한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안정성 있는 운영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일부 참여자들은 프로그램 운영 시간을 다양화하여 직장인의 경우 퇴근 시간 이후에 평생학습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농아인의 경우) 지금 한글을 배우고 싶다는 사람은 있어요. 있지만 사실 그렇게 또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글이 필요하긴 하지만 수요가 많지는 않고 (중략) 사람이 적더라도 나한테 맞는 한글 교육이 필요한 거죠. (H:351-354)

한편 장애인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과 참여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장애 특성별 적절한 지원이 시급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에 적합한 학습 방식과 도구, 인력 지원이 제공되어야 프로그램 참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에 보조인력, 수어통역, 자막제공 등이 적극적으로 제공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프로그램 좋은 거 있으면 참석하고 싶은데 나는 농아인인데 거기는 다 정상인들이다
보니까 프로그램에 참여도 수어 통역이 없고 또 나 혼자 하는 거는 프로그램 (참여를)
못하다 보니까. (E2:266-268)

4. 장애인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연구 참여자들은 평생학습 참여 경험과 어려움을 바탕으로 한 평생학습에 대한 지원 요구로 장애인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이 보고한 장애인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은 (1) 접근성 확보, (2) 안정적인 재정 확보, (3) 강사의 역량 강화, (4)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5) 장애인식 개선으로 요약되었다.

1) 접근성 확보

평생학습의 확대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강조된 것은 장애 특성을 고려한 물리적 접근성이었다. 이미 개관한 평생학습기관의 위치를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이동지원, 엘리베이터나 화장실 등의 편의 시설 마련, 휠체어가 회전하고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의 확보 등은 평생학습기관 접근의 문턱을 낮출 수 있을 것임을 언급하였다.

한편 일부 연구 참여자들은 평생학습기관(융복합센터)을 이용하기에 앞서 해당 프로그램에 장애인의 참여 가능 여부, 장애 특성에 맞는 편의제공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알아봐야 하는 어려움을 토로하며 프로그램 안내에 있어서 장애 친화적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저희도 지원 인력이 다 붙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데 그러한 것들을 개별이라 개별 기관들이 다 알아보고 양해를 구하고 또 이렇게 뭐가 있는지도 알아봐야 된다고 하는 상황이에요. (중략) 이러한 정보들이 어디에 하나가 있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또 정보 매개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E:325-330)

2) 안정적인 재정 확보

일부 연구 참여자들은 재정 부족으로 장애인이 원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개설하기 어렵고 좋은 강사를 섭외하는 데도 한계가 있음을 토로하며 장애인 평생학습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경제활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도 있으므로 평생학습 프로그램 내에서 사용하는 재료비 지원이 필요하며,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의 경우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의사소통 지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였다.

제가 예전에 스마트 교육을 해봤는데 저희 이용자분들이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요즘에 키오스크 이런 교육을 좀 해보려고 했었거든요. (중략) 키오스크가 되게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게 예산의 어려움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E2:245-249)

3) 강사의 역량 강화

면담에 참여한 실무자들은 강사의 역량에 따라 프로그램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알고 있지만 장애인 교육 경험이 있는 강사를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강사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평가 방법과 관리 기준이 마련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출하였다. 또한 장애인 평생학습기관이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강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강사풀을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한 번 해봤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다른 데서 했는데 좋아했다 잘했다라고 해서 입 소문으로 구해요. (중략) 그래서 그런 강사 정보를 공유하는 풀들이 있거나 이 정보망들 네트워크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좋겠어요 (E1:331-337)

한편 연구 참여자들은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강사의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강사의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태도도 평생학습에 영향을 미침을 강조하며 장애이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특히 강사가 장애의 다양한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수업에 적용하기에는 현재의 일회성 교육은 부족함을 지적하며 다회성 교육을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다.

장애 유형별로 좀 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먼저 하시기 전에 제가 이런 프로그램 참여하기 전에 담당자분한테 강사님한테 우리는 시각장애인인니까 말로 설명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있다면 옆에 와서 손을 잡고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사전 지도가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V:277-281)

4)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연구에 참여한 실무자들은 장애인 평생학습기관 간의 정보 공유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즉 국가기관이 장애인 평생학습기관의 연결 및 소통 장치를 마련하여 관내 평생교육기관 간의 정보 교류와 협력을 지원해주기를 바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장애인 평생학습기관들의 네트워크만이 아니라 비장애인 평생학습기관과의 협

력 체계 구축도 필요함이 강조되었다.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학습기관은 그 수가 상대적으로 많고 지리적으로 접근하기 편리한 곳도 있으므로 이 기관들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공간의 활용을 도모할 뿐 아니라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표출되었다.

고령화되고 있는 노인 장애인들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중략) 노인복지관과 장애인 복지관에서는 뭔가 협력해야 되거나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될 것 같더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노인 쪽에 대한 평생교육에 대한 관점이 S구에서 먼저 나간다고 하면 되게 선진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E:512-520)

5) 장애인식 개선

연구 참여자들은 장애 친화적 평생학습의 효율성과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인식 개선 및 다양한 장애 유형에 대한 인식을 향상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특히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과거에 비해 개선되고는 있지만, 더 포용적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더불어 장애인도 자신과 다른 장애 유형을 가진 장애인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는 확장된 범위로 나아간 장애인식 개선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농아인복지관에만 있으면 좀 시야가 좁아져요. 그러니까 요즘 저기 장애인들하고 좀 공유라도 하는 거 보면 좀 시야가 더 넓어지고 장애인에 대해서 더 많은 이해가 되잖아요. (중략) 그런 복지관에서 같이 어울리려 하면 좀 그 사람들이 좀 어려움을 좀 더 자기 알게 되고 서로 좀 이해하게 되고. (H:274-249)

I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는 장애인과 가족, 평생학습 기관을 운영 중인 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여 장애인 평생학습 관련 경험과 그 과정에서 갖게 된 인식을 고찰하였다. 본 절에서는 연구 참여자들과의 면담을 질적 분석한 결과를 논의하고, 장애인 평생학습 질 향상과 확대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장애인과 가족, 평생학습기관 종사자는 평생학습이 장애인에게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장애인은 평생학습을 통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였고,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 지지를 느끼기도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평생학습이 새로운 지식 습득, 대인관계의 긍정적 변화, 자기결정권 향상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김보배, 2023; 정평강 외, 2019; 조창빈 외, 2022)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평생학습이 장애인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장애인 평생학습의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99.1%가 평생학습 참여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비장애인의 평생학습 참여율(28.5%)과 비교할 때 그 격차가 상당히 크다. 따라서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에서의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포괄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내용적 접근성이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요구하였다. 장애인 평생학습의 긍정적 영향을 언급하면서도 현재 장애인을 대상으로 개설되는 평생학습에는 수강인원 제한, 참여기간 제한, 비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참여 시 편의 제공의 어려움 등과 같은 많은 방해 요소가 있어 장애인의 프로그램 선택을 제약한다. 이는 장애인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양적 확충이 시급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장애인만을 위해 개발된 한정된 자원만을 이용하여 평생학습을 운영하기보다는 지역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평생학습 시스템을 정비하고 최대한 활용하여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만하다. 일반 평생학습기관을 많은 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다면 평생학습의 문턱이 낮아지는 동시에 프로그램의 선택권도 높아지게 되어 장애인 평생학습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장애인의 특성 및 욕구를 충분히 고려하여 프로그램의 내용과 수준을 구성할 필요가 있는데, 「평생교육법」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생교육과정의 7대 영역을 골고루 제공하되, 특히 장애 유형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욕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청각장애인은 기초 문해 교육이나 전문적 직업 영역 교육에 대한 욕구가 높고, 중도에 장애인이 된 경우는 지역사회 적응과 관련된 내용을 아우르는 평생학습을 선호하는 등 장애 유형과 특성에 따라 평생교육 영역별 욕구는 다르게 나타났다. 이에 균형 잡힌 평생학습의 영역을 반영하여 장애인이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에서 충분한 선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장애인 평생학습의 직업영역 성과가 매우 낮다고 보고한 조창빈 외의 연구(2022)에서처럼 본 연구 참여자들도 평생학습이 경제적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점을 고

려하여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므로 생애주기에 맞추어 변화하는 욕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연령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중년기 장애인에게 죽음에 대한 방법이라든가(이영선 외, 2017), 운동 능력과 건강을 위한 신체활동 프로그램(노용주, 2023)을 제공하는 등 생애주기에 따라 차별화된 교육 내용이 제공된다면 평생학습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평생학습기관의 지리적 위치, 교통편 이용의 어려움, 혹은 편의 시설 부족 등은 장애인의 평생학습 접근에 방해가 되기에 장애인 평생학습기관의 물리적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매우 필수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의미하는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물리적인 접근성은 건축적 측면에만 한정을 두지 않았다. 장애인 특성에 맞춘 지원 인력(예: 보조인력, 수어통역)제공, 장애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올바른 태도를 갖춘 강사를 확보할 수 있는 관리체계 마련 등도 지적되었다. 이는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센터를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장애인 평생학습의 질을 담보할 수 없으며, 장애 유형별로 장애이해교육이 강화되고 장애인에게 적절한 교수 전략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박미진 등, 2020; 이현주, 정평강, 2021)와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장애인 평생학습 관련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장애인 평생학습 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예: 오산시, 남양주시)(조창빈 외, 2022)를 벤치마킹하여 장애인 평생학습에 요구되는 핵심 역량을 갖춘 평생학습 강사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장애인이 평생학습기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모든 정보를 탐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을 지적하며 장애친화적 정보 접근성 강화에 대한 요구를 드러냈다. 이는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실태조사 결과(이재호, 이우진, 2023)에서도 지적되고 있는데, 장애인 수강생 지원 영역에 있어 정보 접근의 지원이 '보통 미만'의 수치로 저조하게 나타났다(5점 척도에서 2.0 미만). 이에 반하여 평생학습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평생학습권을 증진하기 위해 희망하는 정책 과제로서 정보지원 영역이 가장 낮은 수치(14개 영역 중 14위)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 당사자의 지원 요구와 지원을 제공하는 평생학습기관의 인식 사이의 간극이 있음을 드러낸다.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고자 제5차 「평생교육진흥계획(2023~2027년)」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평생학습 집중지원의 방안으로서 지역 평생학습기관의 프로그램별 장애인 관련 정보 공개를 강화하고 보급하는 방안을 수립하였다. 앞으로의 장애인 평생학습의 확대를 위해서는 정책 수립에서 더 나아가 현장에서 이러한 방안이 구현되어 실질적인 정보 접근 향상 및 장애인 중심의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록 노력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장애인의 웹접근성 확보를 위한 홈페이지 쉬운 글 안내, 해당 지역의 평생학습 기관을 안내하는 평생학습 지도(예: 인쇄물, 모바일 지도)배포 등은 정보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다섯째, 장애인 평생학습의 기회 확대는 개별 평생학습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에 평생학습 기관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이 강조되었다. 이는 장애인 평생학습기관뿐 아니라 일반 평생학습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강조한 선행연구(김두영 외, 2019; 정평강 외, 2019; 조창빈 외, 2022; 홍은숙 외, 2011)와도 그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평생학습기관 간 연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다. 지역사회 내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만 개인적 친분을 토대로 한 기관 간의 협력에 의존하면 정보 공유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이에 기관 시설, 프로그램 운영 아이디어, 강사풀 등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고 기관들의 상호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본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장애인은 분리된 환경에서 평생학습을 받고 있었지만 선행연구(김창호, 2018; 정평강 외, 2019)에서도 보고된 것처럼 통합된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평생학습에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는 장애인 평생학습기관 간의 네트워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일반 평생학습기관과의 협력을 장려하는 실질적인 제도(예: 예산 및 지원 인력 우선 지원, 전문 컨설팅 제공 등) 마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해 장애인 평생학습의 지속적 확대를 위해서는 장애인 평생학습 차원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지역사회 내의 포용적 문화 조성이 필수적임이 드러났다. 장애인 평생학습에서의 장애 친화적인 문화는 평생학습의 사회적 의미로서 함의를 갖는다. 장애인 평생학습은 장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총체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배제를 줄이기 위한 사회적 포용의 과정이다(UNESCO, 2009). 즉, 평생학습의 과정은 사회적 장벽을 해소하고 단단한 안전망을 구축하며 사회 구성원의 다양성을 반영한다는 점에서(강순원, 2013) 지역사회 내의 포용적인 문화는 장애인 평생학습의 과정이자 목표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본 연구는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 평생학습기관이나 비장애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여도 비장애인의 장애에 대한 낮은 인식이 평생학습 참여 방해 요소로 작용한다는 현장의 실태를 확인하였다. 이는 선행연구(이현주, 정평강, 2021; 정평강 외, 2019)를 통해서도 알려진 바로 모든 학습자가 동등하게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습자들 간, 즉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및 장애인 상호 간의 존중과 이해를 고양할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물론 장애인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구조적 체계와 인프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지역사회 내의 공감과 통합의 문화가 뒷받침되었을 때(김주영, 2020) 현장에서의 효과적인 평생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 존중과 이해를 높

일 수 있는 홍보 콘텐츠 제작,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아우르는 지역주민 교류 활동과 같은 실질적인 지원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평생학습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과 그 가족, 다양한 특성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학습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실무자의 실제적인 목소리를 들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A시에 거주하는 연구 참여자의 인식과 경험을 토대로 하였다. 이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정이 평생학습에 대한 인식 및 경험에 미친 영향이 반영되었을 수 있다. 둘째,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으로부터 인식과 경험을 듣고자 여러 기관을 통해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였으나 시각장애와 발달장애 당사자는 각각 1명씩만 연구에 모집되어 여전히 시각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경험을 듣는 데는 제한이 있었다. 다만 발달장애인의 경우 가족과의 면담을 통해 이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장애인 평생학습의 현황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올바른 이해를 위해 평생학습기관을 이용하지 않거나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장애인의 이야기를 듣는 연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 참여한 장애인은 50대-60대가 주를 이루었지만 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라 평생학습에 대한 경험과 요구는 변화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장애인을 청장년기, 중노년기 등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시행해볼 필요가 있다. 셋째, 장애인 평생학습의 성과를 측정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장애인 평생학습에 대한 이해는 높아지고 있으나 이러한 이해를 토대로 평생학습이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다. 이에 장애인 평생학습의 성과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Cha, J. K., Park, Y. K., & Lee, J. H. (2021). A study on the perceptions of lifelong education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Focused on worker for lifelong education organizations in G city. *Journal of Lifelong Learning Society, 17*(2), 233-258.
- [차재경, 박영근, 이재호 (202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 연구: G 광역시 평생교육 기관 종사자를 중심으로. **평생학습사회**, 17(2), 233-258.]
- Cho, C. B., Kim, D. Y., & Jang, C. S. (2022). Analysis of satisfaction and study achievement of adults with disabilities participating in lifelong education programs.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Rehabilitation Science, 61(2), 149-176.

[조창빈, 김두영, 장철승 (2022). 장애성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만족도 및 학습성과 분석.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61(2), 149-176.]

Choi, Y. Y., & Lee, S. H. (2020). A study on perception and task of lifelong education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10(4), 133-139.

[최윤영, 이세희 (2020). 장애인 평생교육의 인식 및 과제에 대한 연구. **융합정보논문지**, 10(4), 133-139.]

Hong, E. S., Yoo, J. S., & Park, K. O. (2011). Management status and support needs for career & vocational education and continuing education of special education support centers.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12(1), 509-531.

[홍은숙, 유장순, 박경옥 (2011).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로 및 직업교육과 평생교육에 대한 운영 현황 및 지원요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2(1), 509-531.]

Hong, S. D., & Jo, E. H. (2018). Research trends in lifelong education programs for developmental disabilities. *Korean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29(3), 95-113.

[홍성두, 조은혜 (2018). 발달장애 평생교육 프로그램 국내 연구 동향. **한국초등교육**, 29(3), 95-113.]

Jeong, P. G., Lee, H., Lee, Y., & Ku, J. A. (2019). A qualitative inquiry of the needs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families for lifelong education. *Journal of Lifelong Learning Society*, 15(4), 57-82.

[정평강, 이현주, 이영선, 구경아 (2019). 평생교육에 대한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요구 탐색. **평생학습사회**, 15(4), 57-82.]

Kang, J. H., & Jeong, Y. S. (2023). Experience of practitioner on lifelong learning city business management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Study of Lifelong Education and Welfar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9(1), 1-26.

[강주희, 정연수 (2023).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 실무자의 운영 경험. **장애인평생교육·복지연구**, 9(1), 1-26.]

Kang, S. W. (2013). Lifelong education for adults with disabilities: From exclusion to inclusion. *Korean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19(1), 55-84.

[강순원 (2013). 장애성인 평생교육: 배제에서 포용으로. **평생교육학연구**, 19(1), 55-84.]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22). *Korean adult lifelong learning survey*.

[한국교육개발원 (2022).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실태**. 한국교육개발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0). *National surve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2020 장애인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im, B. B. (2023). Adul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welfare centers for the disabled: A study on lifelong education support experiences. *The Study of Lifelong Education and Welfar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9(2), 29-56.

[김보배 (2023). 장애인복지관 종사자의 성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경험에 관한 연구. **장애**

인평생교육복지연구, 9(2), 29-56.]

Kim, C. H. (2018). The perception of developmental disabilities, parents,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workers on lifelong educatio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25(2)*, 227-253.

[김창호 (2018).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에 대한 장애당사자, 부모, 종사자의 인식. **특수교육연구, 25(2)**, 227-253.]

Kim, D. Y., Cho, C. B., & Jeong, H. D. (2018). Lifelong education awareness and needs of the person in charge of lifelong education for the disabled welfare center.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25(2)*, 129-151.

[김두영, 조창빈, 정해동 (2018). 장애인복지관 평생교육 담당자의 평생교육 인식 및 요구. **특수교육연구, 25(2)**, 129-151.]

Kim, D. Y., & Lee, K. J. (2018). A study on the recognition and needs of lifelong education by workers an facilities for lifelong educa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Gyeonggi Province. *Korea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53(1)*, 23-47.

[김두영, 이경준 (2018).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종사자의 평생교육 인식 및 요구 - 경기도 내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특수교육학연구, 53(1)**, 23-47.]

Kim, D. Y., Lee, B. I., Lee, K. J., & Cho, C. B. (2019). A study on the perception and needs of workers on construction of linkage systems between general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s and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Korea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53(4)*, 163-184.

[김두영, 이병인, 이경준, 조창빈 (2019). 일반 평생교육기관과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실무자의 인식 및 요구. **특수교육학연구, 53(4)**, 163-184.]

Kim, H. S., & Yang, H. T. (2019). A study on the necessity of welfare policy reflecting the needs of the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Siheung,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should focus on the survey of their needs. *The Study of Lifelong Education and Welfar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5(2)*, 25-53.

[김현숙, 양희택 (2019).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수립을 위한 발달장애인 욕구분석 연구 - 시흥시 거주 발달장애인의 욕구를 중심으로. **장애인평생교육·복지연구, 5(2)**, 25-53.]

Kim, J. Y. (2020).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lifelong education support system model for the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Focused on the case of Gyeonggi-do. *The Study of lifelong Education and Welfar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6(2)*, 1-28.

[김주영 (2020).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체계 모형 개발 연구: 경기도 사례를 중심으로. **장애인 평생교육복지연구, 6(2)**, 1-28.]

Kim, K. R. (2020). Exploring variables affecting the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lifelong education for the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1(4)*, 333-341.

[김기룡 (2020).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탐색. **한국융합학회논문지, 11(4)**, 333-341.]

- Kim, K. R., & Na, K. E. (2015). Analysis of the parents' needs of lifelong education program for the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16(4), 315-336
[김기룡, 나경은 (2015).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교육과정에 대한 부모의 요구 분석.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 16(4), 315-336.]
- Kim, K. Y. (2017). A delphi research about developing lifelong education for learner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n Developmental Disabilities*, 21(3), 1-18.
[김경열 (2017).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발전 방안을 위한 델파이 연구. **발달장애연구**, 21(3), 1-18.]
- Kwon, M. Y. (2022).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lifelong education-related workers on STEAM-based lifelong education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Rehabilitation Science*, 61(2), 103-124.
[권미영 (2022). 발달장애인의 STEAM 기반 평생교육에 대한 평생교육 관련 종사자의 인식 조사.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61(2), 103-124.]
- Lee, H. J., & Jung, P. G. (2021). Analysis of perceptions and needs of workers in lifelong educational institute on lifelong education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Journal of Lifelong Learning Society*, 17(2), 233-258.
[이현주, 정평강 (202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평생교육기관 종사자의 인식 및 요구. **평생 학습사회**, 17(2), 233-258.]
- Lee, J. H., Park, Y. K., & Cha, J. K. (2020).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lifelong education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Focusing on parents and guardians of G City.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for Curriculum and Instruction*, 13(1), 119-145.
[이재호, 박영근, 차재경 (2020).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 조사 연구: G 광역시의 보호자와 후견인을 중심으로. **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 13(1), 119-145.]
- Lee, S. Y., & Seo, S. J. (2022). A study on the special education teacher's perception of revitalizing for lifelong education program for the disabled.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Rehabilitation Science*, 61(3), 141-164.
[이신영, 서석진 (2022).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특수교사의 인식과 요구 분석.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61(3), 141-164.]
- Lee, Y. S., Min, K. Y., You, Y. S., & Lee, H. J. (2017). Concepts and perceptions of death and experiences of bereavement in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 systematic review. *The Journal of Autism*, 17(3), 115-139.
[이영선, 민기연, 유영신, 이희정 (2017). 발달장애인의 죽음에 대한 인식과 사별 경험: 국외 문헌분석. **자폐성장애연구**, 17(3), 115-139.]
- Myeong, S. Y., & Kim, D. Y. (2017). The perception of and the state of participation in lifelong education of the parent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18(3), 1-23.

- [명소연, 김두영 (2017).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의 평생교육 인식 및 참여 실태.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8(3), 1-23.
- National Institute of Special Education (2021). *2021 survey of lifelong education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state*.
[국립특수교육원 (2021). **2021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조사**. 국립특수교육원.]
- Park, M. J., Ju, Y. H., & Kim, K. R. (2020). A study on the recognition of lifelong Education for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Focused on consumers and suppliers. *The Journal of Special Children Education*, 22(3), 107-200.
[박미진, 김기룡, 주영하 (2020).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연구: 수요자와 공급자를 중심으로. **특수아동교육연구**, 22(3), 107-200.]
- Roh, Y. J., Han, K. G., & Lee, J. J. (2023). Effects of the 'WITH_ESN' program for improving motor control ability of adults with extensive support needs in day-care facilities. *The Education Journal for Physical and Multiple Disabilities*, 66(2), 83-99.
[노용주, 한경근, 이준재 (2023). 운동조절 능력 향상을 위한 'WITH_ESN' 프로그램이 주간보호시설 성인 중도장애인에 미치는 효과.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66(2), 83-99.]
- Seo, Y. K., & Park, J. K. (2022). Day care center operators' awareness of lifelong education for the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Focusing on Busan city.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Rehabilitation Science*, 26(2), 51-74.
[서유경, 박재국 (202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자들의 인식: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특수교육논집**, 26(2), 51-74.]
- Shin, Y. H., & Park, K. O. (2021). A survey on the status of participation and support request of the parties who participated in the lifelong learning city operation project for the disabled.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Rehabilitation Science*, 60(3), 115-140.
[신윤희, 박경옥 (2021).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에 참여한 당사자의 참여 현황 및 지원 요구에 대한 인식 조사: 경기도 G시를 중심으로.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60(3), 115-140.]
- UNESCO (2009). *Policy Guidelines on Inclusion in Education*. UNESCO.
- Yang, I. S., Ahn, D. G., Nam, Y. R., & Han, J. E. (2020). A study on the operation status and development plan of the lifelong education center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 Study of Lifelong Education and Welfar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6(1), 117-149.
[양인숙, 안덕근, 남영란, 한정은 (2020).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운영현황 및 발전방안 연구 -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장애인평생교육·복지연구**, 6(1), 117-149.]

<국문 초록>

장애인 평생학습에 대한 장애인, 가족, 평생학습기관 실무자의 인식 및 요구: A시를 중심으로

이 지 선 · 김 유 리 · 백 예 은 · 최 아 름 · 이 중 민 · 임 보 령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의 평생학습 참여 기회를 향상시키기 위해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평생교육기관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평생학습과 관련된 전반적인 경험과 지원요구를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방법]** 이를 위하여,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장애인 및 가족, 평생교육기관 종사자 포함 총 16명을 대상으로 심층 개별면담 및 초점집단면담을 실시하였다. **[결과]**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장애인 평생학습에 관한 인식 및 지원요구와 관련하여 4가지 대주제와 그에 따른 17가지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 4가지 대주제는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강화, 장애인 평생학습 참여의 어려움,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강화, 장애인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이다. **[결론]** 장애인이 평생학습 참여를 통해 얻는 긍정적인 영향과 그 필요성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평생학습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평생교육기관으로의 물리적 접근성 향상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적 접근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으며,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충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더 나아가 지역사회 내 장애인 평생학습기관 간의 원활한 네트워크 체계를 마련하고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지역사회 내 전반적으로 장애인 평생학습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포용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주제어 : 장애인 평생학습, 평생교육, 평생교육기관

논문 접수(Received): 2024. 02. 07. / 심사 시작(Examined): 2024. 02. 08. / 게재 확정(Accepted): 2024. 03. 09.